

배포일시	2020. 7. 31.(금) 17:4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유용규 전문관 박찬귀
		전화번호	042-363-3599

세종·충남북부 많은 비

- 세종·충남북부 집중호우 주의!
 - 8월 1일 밤 ~ 2일 아침 시간당 30mm 이상
- 총 예상강수량(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)
 - 세종·충남북부: 50~100mm
 - 대전·충남남부: 20~60mm



[8월 2일 새벽 기압계 모식도]

[강수 전망]

□ (전망) 서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가운데,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8월 1일(토) 밤~ 2일(일)에 세종·충남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

□ (강수집중 구역과 시기)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가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고온의 수증기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여 세종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1일 밤~2일 오전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.

○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형성되고,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인근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겠으니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● 예상강수량(7월 31일~8월 2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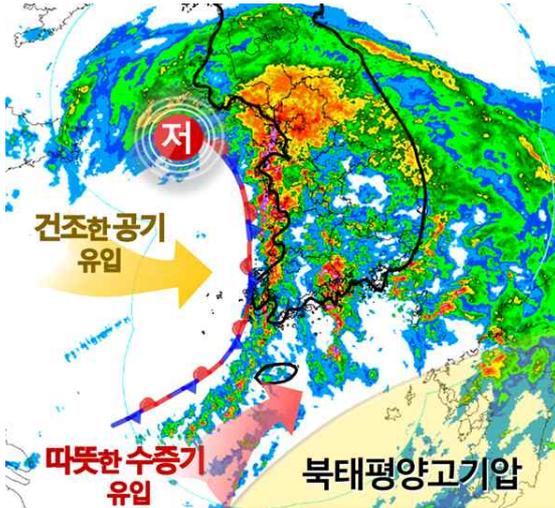
- 세종.충남북부: 50~100mm
- 대전.충남남부: 20~60mm

□ (향후 전망) 3일(월)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당분간 중부지방과 북한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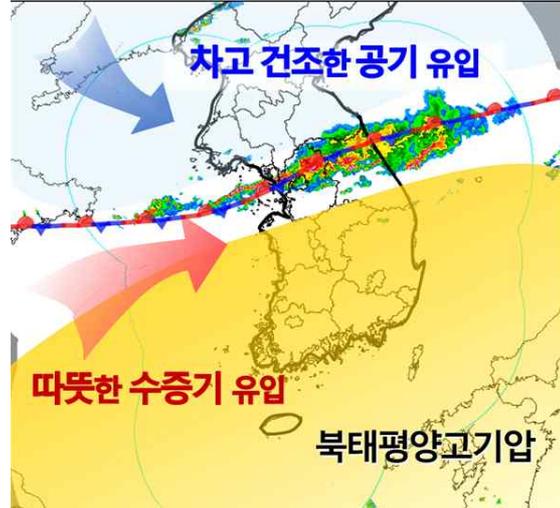
○ 특히, 야간(밤~아침)에 비구름이 강해지는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겠고, 3일은 북서쪽으로부터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비가 더욱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기상청 홈페이지(날씨누리)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.

□ (변동성)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 또는 태풍이 발생할 경우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와 강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, 고기압의 미세한 진동에도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남북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중기예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[최근 장마의 특징]



[6월 10일~7월 27일 강수 특징]



[7월 28일 이후 강수 특징]

- 최근 장마기간 동안(7월) 우리나라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고,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느리게 북상하면서 정체전선은 제주도남쪽해상에 머물고 있었으나,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차 확장함에 따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강수영역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.
- (6월 10일~7월 27일) 주기적으로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끌어올리면서 강한 비가 지속되는 시간은 비교적 짧았지만, 강수영역이 남북으로 폭넓게 형성되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었으며,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물러나는 시기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남쪽 먼 해상으로 남하하는 경향이 반복되었습니다.
- (7월 28일 이후) 북태평양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정체전선이 함께 우리나라로 북상하고, 고기압 가장자리로부터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강수구역이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게 나타나고 있으며, 한 곳에 강한 비가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, 이후에도 이러한 특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